

12평 법당 해체보수에 4년이 짧아?

안성 석남사 영산전 '능장행정'으로 천막속 방치... 예산승인·현상변경 절차가 '이유'

해체보수 공사를 위해 가설한 덧집이 훑물스럽게 안성 석남사 영산전(보물 제23호, 12평)을 덮고 있다. 석남사 신도들은 참배할 공간은 물론 예전의 영산전 모습을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다. 영산전 주변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자재며 산더미처럼 쌓인 깨진 벽화와 기왓장들이 그동안의 공사현황을 묵묵히 말해주고 있을 뿐이다.

2003년 3월 안성시청에서 해체보수를 위해 법당을 해체한 후, 지금까지 거의 방치돼 있는 영산전의 모습이다. 석남사 측은 영산전 해체보수 공사로 인해 사찰 수행환경 저해는 물론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네 번이나 못 치른 데 따른 피해상황을 문화재청과 안성시에 수차례 항의했다. 하지만 이들 관할청들은 예산집행과 현상변경 절차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여전히 '능장행정'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석남사 장일 사무장은 영산전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문화재 보수에 앞서 충분한 조사가 미흡했고 이후 신속한 행정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공사는 영산전 기와를 교체하기 위해 2003년 3월 시작됐고, 문화재청은 막상 기와를 걷어보니 건축물 내부가 심하게 부식·훼손돼 있어 전체 해체보수 공사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2003년 10월부터 영산전 해체보수공사가 진행됐다. 그 후 안성시는 2년이 지나고 나서야 추경예산을 통해 문화재청으로부터 2억원의 긴급보수 지원에



① '80%이상 공사가 완료됐다'고 말하는 안성시 관계자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공사자재로 가득 채워진 안성 석남사 영산전 내부 ② 석남사 한 귀퉁이에 쌓여있는 영산전 벽면조각과 깨진 기와조각 ③가설 덧집으로 덮인 영산전의 모습



산을 지급받았다. 서둘러 진행했어야 할 공사가 두 해가 지나도록, 우천에 대비한 보호 장비 하나 없이 방치된 것은 관할관청의 능장대응의 결과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문화재청과 안성시 관계자는 "현행 문화재 보수에 대한 예산 승인과 현상변경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라 공사가 길어진 것은 어쩔 수 없었다"며 "석남사 영산전 해체보수 공사의 경우도 처음부터 확실한 예산집행과 현상 변경 승인 절차를 밟았다면 이런 일

이 없었을 테지만 지금의 문화재 보수 시스템상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안성시청 관계자는 또 "현재 석남사 영산전은 지붕과 벽면 공사를 포함해 80% 이상 완료된 상태며 단정 공사를 위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 및 설계심사 승인 신청을 올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일 사무장은 "현재 공사가 중단된 지 한달이 넘었고 공사자재도 기간이 만료됐고 우천에 대비한 안전장치 하나 없이 공사가 무사히 마무리될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장 사무장은 또 "올 9월에 공사가 끝나더라도 전년도 추경예산 항목에서 누락된 단정비 1억원은 2007년도 예산으로 반영돼 있어 예산승인이 결정되고 단정공사를 마치려면 앞으로 2년은 더 걸릴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석남사 회주 정무 스님도 "하루 빨리 영산전이 제 모습을 되찾아 신도는 물론 사찰을 찾는 관광객들의 울퉁은 수행과 수행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안타까워했다.

글·사진=노병철 기자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61>

분석과 종합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제일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인텔사의 창업자 중 한 사람인 그로브 박사. 그가 저술한 <오직 편집증환자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은 10년 전 서점에서 불타나게 팔렸다. 이 책은 자기의 전공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편집증에 걸렸다고 할 정도로 그 분야에 집중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반도체 업계의 경쟁이 설계로부터, 생산에 걸친 모든 분야를 한 회사가 종합하던 패러다임(IDM: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에서 한 분야에 집중하는 조그만 회사가 더 경쟁력을 가지는 패러다임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것이 더 중요한 때도 있다. 그리고 개인별로 보면 나누어서 분석을 잘 하는 사람과 전체를 종합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 흔히 한국 학생들은 종합보다는 분석을 잘 한다고 한다. 오래된 역사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교육에서 요인을 찾을 수도 있다. 실제로 미국의 초등학교 수학시간을 참관해 보면, 덧셈을 가르칠 때 2+3의 답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무엇과 무엇을 더하면 5가 될 것인지 묻는다. 이러한 학습이 학생들에게 종합적 사고능력을 키워 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수억개의 트랜지스터를 사용해서 핸드폰이나 컴퓨터 핵심 반도체 칩을 설계할 때, 처음에는 추상적인 설계 단계를 거친다. 이 때에는 한 가지 해답

목적에 따라 분업과 통합작업 선택해야

불교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행동으로 제시

사,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회사, 소프트웨어를 개발 하는 회사, 칩을 잘 조립하는 회사로 분리돼 서로 협력하는 비즈니스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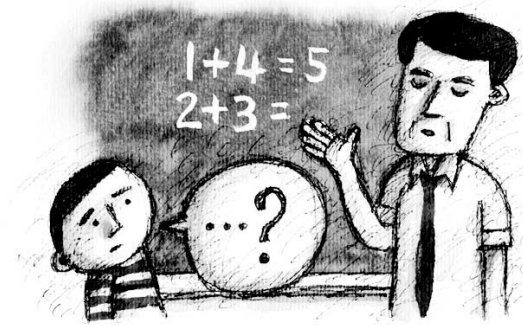
그러나 최근에 다시 전 분야를 다 종합하는 회사(IDM: 인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가 이에 해당)가 더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핸드폰 등과 같이 새로운 모델이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 회사 내에서 모든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는 것이 빠르게 반도체 칩을 만드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을 개발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 또한 시대에 따라서 변화한다.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분야별로 나누어서 연구개발을 잘 하는 것이 더 유리할 때도 있고, 한 사람이 전체를 잘 종합하는

이 없기 때문에 추상적이면서 종합적인 능력이 요구된다. 일단 추상적인 단계를 거쳐서 구체화되면 동작을 위한 회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복잡한 회로를 배치시키는 기하학적인 단계와 분석 단계를 거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우주의 존재를 '공(空)'이라는 사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한 예다. 아마 이러한 표현방법은 현재 인도 과학자들의 추상화 능력에 큰 도움을 줬을지 모른다. 불경에서는 인연법이나, 4성제, 팔정도 등의 개념에 대해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다. 불법을 배우면서 인간의 진정한 삶의 방향과 우주의 실상에 대해서 종합하는 능력과 해석능력을 같이 배울 수 있을지 모른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문병성

"고려율의 바탕은 불교 평등사상" 연정열 교수 주장

"고려시대의 입법인 고려율은 불교의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성립된 법규정이다."

한성대 연정열 명예교수(사진)는 '고려율과 불교의 평등사상'이라는 논문을 통해 개정되는 호주제는 불교의 평등사상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주장해 불교계와 법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고려시대 고려율은 당나라 율법에 영향을 받았지만 불교의 평



등사상을 바탕으로 성립된 입법규정으로 당율과 구분되는 고려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성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점이다"고 밝히고 있다. 논문에 나타난 고려율 전문 71조 내용 중 △남·여 구분 상속 △과부의 재혼 허용 등의 조항이 그 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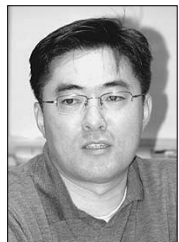
이에 대해 연 교수는 고려의 통치 이념인 훈요십조 중 '고려의 입법과 대입은 반드시 불교의 힘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을 예로 들며 고려율이 불교사상에 근거했다는 입법배경을 제시했다.

노병철 기자

'열반'의 의미 변천사 탐구 황순일 교수 '불교에서...' 펴내

불교 교리 상에서 '열반'은 어떤 의미로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짚어준 <Metaphor and literalism in Buddhism-The doctrinal history of nirvana(불교에서 비유와 직역주의-열반의 교리발전사)>가 나왔다.

저자 황순일 교수(동국대 인도철학과·사진)는 책에서 교리가 발전함에 따라 살아서 얻는 유열반과 죽음을 함께 얻는 무열반의 구분은 존재론적으로는



무열반이 부처님의 소멸이라는 이미지에 대한 브리마적 해석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면서 열반이 실체화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영국 및 유럽에서 8월에 출간된 이 책은 영국의 인문사회과학 전문출판사인 루트리지 출판사와 옥스퍼드 불교학센터가 함께 발간하는 루트리지 불교비평 시리즈 중 하나다. 한국 학자로는 황 교수가 처음 동참했다. 미국 및 아시아에서는 11월 출간 예정이다.

40여권이 출판된 루트리지 불교비평 시리즈는 폴 윌리엄스, 데미안 키온, 수해밀런, 리처드 콤포비치 등의 저명한 불교학자들이 저술했다. 김지연 기자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 출시 - 공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1차분 완대로 인하여 2차분 한정제작. 인화된 가격으로 선착순 공급하게 되어 기쁩니다.」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5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히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동안 배운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게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현재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3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후 월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90만원 (보납방법: 인도금 40만원, 한달후 30만원, 두달후 20만원) ※일시불은 80만원에 공급함
- ◆ 계좌번호 농협 704-02-341067(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예금주 : 이하림)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